

##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간의 Focal Nodular Hyperplasia 증례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직병리학교실<sup>1</sup>

장윤경, 안영용, 신영신, 김영옥, 진동찬, 김석영, 최의진, 방병기, 이은희<sup>1</sup>

간의 Focal nodular hyperplasia는 간의 양성종양으로서, 주로 여성호르몬을 복용하는 중년여성에 호발하는 질환이다. 이것의 장기적인 예후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나, 일정 기간을 두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간의 focal nodular hyperplasia와 신이식 환자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Azathioprine이나 CyclosporinA를 장기복용하는 환자에서 간의 peliosis와 함께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는 처음으로 신이식 후 경과관찰 중에 간의 Focal nodular hyperplasia로 조직학적인 진단을 받은 예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8세의 여자 환자로서 1987년에 원인불명의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1987년 8월부터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였다. 1990년 2월에 신이식술을 받고, CyclosporinA과 prednisolone을 복용 중이었다. 1992년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NPH 36단위로 조절 중이었다. 환자는 2002년 4월 11일에 정기검진상 시행한 간초음파에서 4.5cm 크기의 간내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2002년 4월 17일에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생체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70/min, 호흡수 20/min, 체온 36.7℃이었고, 신체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에서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7,500/mm<sup>3</sup>, 혈색소 10.5g/dl, 혈소판 343,000/mm<sup>3</sup>이었고, 혈액화학검사상 BUN은 17.3mg/dl, creatinine은 1.26mg/dl, AST 14IU/L, ALT 11IU/L이었다. 간염표지자 검사상 HBsAg 및 Anti-HBs는 음성이었고, Anti-HCV도 음성이었으며, 혈청 AFP 수치는 3.2ng/ml(0-20)로 정상이었다. 복부의 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전엽에 4cm 크기의 focal nodular hyperplasia소견의 병변을 확인하고, 초음파 지도 하에 간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focal nodular hyperplasia로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퇴원하여 cyclosporin 용량의 조절없이 혈중농도에 맞추어 투약 중이며, 내과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